

唐代文學의 時期區分 問題

洪 寅 杓*

I. 序 論

文學의 時期를 區分한다는 것은 文學의 歷史的인 特徵을 살펴 봄으로써 보다 뚜렷하게 文學發展의 實體를 이해하고자 한이다. 즉 그것은 文學史記述의 중요한 方面이기도 하다. 그러나 文學의 歷史(History of Literature), 혹은 文學的인 歷史(Literary history)를 파악하려면 어떤 脈絡에서 文學作品이 생산되어 變化・發展하였는가를 규명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記述者의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사실상 명확한 한계를 긋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文學이 社會相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文學은 個人의 主觀的인 感情의 기록인 동시에 독자의 감정반응이 그 文學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단순한 역사의 기술은 時代的인 客觀的 情況이 前後의 時代에 비추어 어떠한 영향과 결과를 가져왔는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文學을 歷史的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의 기록처럼 時代的으로 큰 영향이나 결과를 미친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사실과 사건이 文人의 著述에 반영되어 독자에게 얼마나 공감을 일으켰는가를 객관적으로 조명하여 그 時代의 全體的인 特性을 발견할 때 비로소 時代區分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즉 文學史의 記述은 朝代的 變化(國家의 興亡)나 社會情勢의 激動(國家的인 災難이나 戰亂)에 따라 時代를 區分하기가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기록되어질 수도 없으므로 그러한 방향에서 기록되어 왔으며, 그것이 대체로 받아들여졌다. 크게 본다면 朝代的 變化는 국가의 새로운 氣風을 가져오

* 서울대 인문대 중문학과 부교수

게 하는 것이고, 그 氣風에 젖어 있는 社會相을 文人은 작품에 반영하게 되며, 또 한 朝代에 있어서도 社會를 뒤흔들만한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실은 文學作品에서도 어떻게든 나타나게 마련이므로 文學的인 時代區分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즉 作品의 時代區分은 社會를 반영한 수많은 作家의 文學作品 속에서 그 時代의 特性을 뚜렷하게 반영하는 作品경향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각 時代의 수많은 作家·作品 중에서 그 時代의 全體的인 傾向이 前後의 他時代와 특별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를 한 時代的인 文學그룹으로 區分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中國文學을 朝代에 따라서 「漢文(賦), 唐詩, 宋詞, 元曲」 등으로 區分하고 있는데 각 朝代에 그러한 文學形態가 가장 時代的 特徵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러한 각 朝代의 文學形態가 반드시 그 時代의 文學的 特徵이나 特性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그와 더불어 존재했던 다른 형태의 文學作品의 경향도 함께 고려되어 時期가 區分되어야 함은 물론이다.¹⁾

文人의 作品은 主觀的이지만 文人의 作品이 集積된 時代的인 文學的 特徵 혹은 特性은 객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作品은 個別的이고 獨立的이지만, 文學史에서 다루어질 作品은 一般的이며 共通的인 것이어야 하며, 前後代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文學 자체는 역사적인 사실과 직결되어 急變하지도 않으며 특히 中國文學의 경우는 前後 역사적인 사실에 따라서 급격한 외형적 변화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대로 作品이 生成增減하여 왔기 때문에 그 時代를 區分하기가 어렵다. 文學의 時代區分이 다른 역사적 사실의 기록과 달라야 하면서도 크게는 역사적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음도 이에 연유한다.

批評者는 作家를 選拔하여 그들을 어떠한 構造 속으로 정리하지만 文學史家

1) Stephen Owen은 初唐詩에서 寒山子와 王梵志의 詩가 그 時代의 主流과 逸脫되었다고 하여 같은 그룹으로 논할 수 없다며 除外시켰다. 『The Poetry

는 構造를 정립하고, 作家를 그 안에 의치하게 한다.²⁾

이러한 西歐의 文學的 견해는 作家(作品)가 먼저냐 構造가 먼저냐의 차이에 따라 文學批評家와 文學史家를 區分한 것이나, 文學史가 構造를 앞세우고 이에 作品을 집어 넣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많은 作品 또는 作家에서 특정한 것을 선별하지 않을 수 없으며, 批評이 作品을 앞세우고 거기서 構造的 特性을 추리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構造란 作品 또는 作家의 時代的 性格에서 파악할 수밖에 있기 때문에, 文學史家와 文學批評家의 견해는 서로 긴밀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다만 構造的인 정리가 여러 면에서 합당하면서도 그 時代의 文學적인 特性을 포괄할 수만 있다면 이로 인해 作家의 보다 合理的인 時代區分, 즉 文學史를 記述할 수가 있다 하겠다.

唐代文學의 構造的인 特徵을 唐詩와 古文으로 大別하여 區分하는 것은 그들이, 성형하던 駢文이나 歷代의 詩文辭賦와는 다른 特性을 갖기 때문이며, 이는 단순한 構造的인 것에서부터 構造內部的 性格的 差異에 까지 고찰된 결과이기도 하다. 唐詩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唐詩가 唐代文學의 전부가 아님은 물론이며 그 이전 이후에도 唐詩와 같은 構造가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唐代에는 詩가 가장 많이 출현하였고 이를 時代的으로 初·盛·中·晚唐으로 區分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異論이 제기된 것은 앞서 말했던 文學을 어떤 角度에서 時代的인 意味를 찾거나 構造를 이해했다는 批評者와 文學史家의 견해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of Early T'ang]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1977. p. xiii
참조.

2) A. Owen Alcridge(미국 일리노이대 비교문학과 교수)가 'The Borderlines of Literary History'란 논문(『比較文學』13집, 韓國比較文學會 1988. 12)에서 불란서의 비교문학자들이 견지하고 있는 견해라고 하면서 인용한 말이다. 원문은 아래와 같다. 「The critic chooses writers and organizes them into structures; the historians defines structures and situates writers within them.」 p. 350.

本稿에서는 이러한 唐代文學의 時期區分 문제를 言及하였던 文獻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그러한 區分의 可否를 가린다고보다는 議論者들의 立場에서 이해하려는 방향을 취하여 보다 뚜렷한 唐代文學의 性格을 全體적으로 파악하는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하여 시도해 본 것이다.

Ⅱ. 唐詩의 時期區分

『全唐詩』에 수록된 作家는 2,200 餘人이며 作品總數는 48,900 餘首에 이른다.³⁾ 이는 唐代 290년의 짧은 時期에 나타난 현상이지만, 詩經 이후 六朝代까지 1000여년의 生産된 詩歌의 總量의 몇 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量的인 增加로 唐代文學의 대표로서 唐詩가 지목받은 것은 아니다. 明代에는 作家가 3,400 餘人이라 집계되고 있으므로 作品總數는 唐代에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더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明詩에 대한 時代區分이나 特性을 논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것은 마치 唐代의 駢文이 六朝時代의 駢文보다 量的으로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많았지만 唐代의 駢文을 論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경우와 같다. 이미 時代的 特性을 찾기에 文學적으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唐代文學을 처음으로 分期한 것은 宋 姚鉉(968~1020)의 『唐文粹』에서이다. 그는 唐文을 梁 昭明太子의 『文選』을 모방하여 가리 뽑았는데, 첫째로 陳子昂의 風雅의 振作으로 李·杜가 출현하였고, 둘째로 張說과 蘇頲의 雄渾한 문장으로 蘇頲·李華·楊敬之 등의 文質彬彬한 作品이 출현하였으며, 셋째로 韓愈의 古文倡導로 柳宗元·李翱·皇甫湜이 뒤따라 나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姚鉉은 聲偶를 반대하여 初唐과 晚唐의 浮靡한 文風을 비판하였고, 律詩는 除外시키는가 하면 中唐의 李翱·元結·獨孤及·呂溫·權德輿·劉禹錫·白居易·元稹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3) 『全唐詩』(上), 宏業書局 民國 66年 6月版 p.1. 「得詩四萬八千九百餘首, 凡二千二百餘人。」

이는 儒家的인 입장에서 內容을 위주로 唐代의 詩文을 區分한 것이다. 그는 唐 中期의 대표적인 文人을 중심으로 作品을 社會敎化的인 입장에서 選拔하였고, 그 변화과정을 陳子昂→張說·蘇頲→韓愈를 起點으로 변화·발전하였다고 보았다.⁴⁾

歐陽修(1007~1072) 主纂의 『新唐書·文藝傳』에서도 비슷한 分期를 하고 있다. 즉 唐 高祖와 太宗時期에는 江左의 華靡한 문풍이 지속되어 이른바 初唐四傑로 일컬어지는 王·楊·盧·駱이 뛰어나고, 玄宗時期에는 張說과 蘇頲이 추앙되었으며, 大歷·貞元時期에는 韓愈와 柳宗元·李翱·皇甫湜 등이 古文을 倡導·和應하였다고 하였다.⁵⁾

『唐文粹』와 『新唐書』에 나타난 唐代文學의 時期區分은 다같이 浮靡한 文風을 배제하고 있으면서도 『唐文粹』는 初唐四傑의 언급이 없는데 비하여 『新唐書』는 이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新唐書』는 「文藝傳」의 序文에서 간략하게 唐代의 文學觀을 언급하고 이어서 몇몇 文人의 略傳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唐文粹』의 순수한 文學的인 作品을 選載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진정한 唐代文學 作品에 관련된 姚鉉의 觀點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겠으나, 唐代 初期의 文學이 江左齊梁의 文風을 이어받으며 그런대로 뛰어난 人물을 소개하고 있음은 歷史的으로나 文學的으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들이 소개한 起點은 文學의 性格變化를 말한 것인데 唐 玄宗 때와 大歷·貞元時期라는 점이 일치되고 있다. 여기에 初唐과 晚唐時期를 합치면 결국은 四分期가 되는 것이다. 본래 朝代가 바뀌면 文學이 이에 따라 급변하지는 아니한다. 문인은 이미 前代의 환경에서 성장하였거나, 前代에서 벼슬을 하였거나 또 일부 의례적인 頌德을 내세우는 御用文人이 있거나, 또는 과거를 못 잊고 悲感에 젖어 吟詠하는 作品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時代狀況의 特徵을 드러내는 文學의 일반적 성격

4) 『唐文粹』世界書局, 民國 62年 2月 影本 pp.2-4 참조.

5) 『新唐書』(下), 卷 101, 列傳 126, 서울景仁文化社 影本 p.628 참조.

이라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國運이 衰退할 時期에도 문인들은 그러한 사회적 상황을 文學的인 표현으로 作品에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朝代가 始終하는 前後의 文學樣態는 표현 기교에 있어서는 前代의 가장 발전한 상황이 나타나지만, 그 내용은 이미 그 時代相과는 차이가 드러나는 공허한 경향을 띠게 된다. 『唐文粹』에서 初唐文學를 재의시켜 언급한 것은 그것이 前代의 文風과 일반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본 것이고, 『新唐書』에 初唐四傑을 언급한 것은 前代의 文風이면서도 唐代에 들어와서 唐代의 時代相을 특징적으로 나타낸 인물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晚唐의 文風이 初唐과 차이가 없거나 아예 언급을 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南宋의 嚴羽(1200 前後)는 『滄浪詩話』에서 “詩를 論함은 禪을 論함과 같다”고 견제하고, 漢魏晉과 盛唐의 시를 第一義의 詩로, 大歷 이후의 시를 第二義의 詩로, 晚唐의 시를 聲聞辟支果로 區分하였다.⁶⁾ 嚴羽는 시의 純粹性和 自然性을 강조하여, 그런 면에서 時代가 지남에 따라 시인의 감정은 世俗化했다고 판단한 듯 하다. 다시 말하면 사물의 현상에서 느끼는 인간의 순수한 감정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느끼게 할 수 있는 어떤 영묘한 깨달음(妙悟)의 경지로서 시로 나타내어야 그 시가 正覺 上乘의 詩라고 보았다. 詩에 人爲的인 修辭나 사실적인 내용, 더우기 諷刺라든가 技巧를 忌避하고 있다. 嚴羽의 관점에서 보면, 대체로 古人의 詩는 後人の 詩보다 素朴하면서도 자기의 心懷를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현한 경우가 많다. 비록 嚴羽가 지적했듯이 漢代부터 盛唐 때까지의 시가 다 第一義의 詩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가 지적한 것도 모두가 그렇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는 적어도 시인의 감정이 盛唐 이전에는 순수하고 자연스러웠음을 全體的인 입장에서 간파하였고, 盛唐 이후에는 世俗的인 경향이 농후해졌고, 晚唐에 와서는 순수성과 자연성을 상실한

6) 『滄浪詩話』 詩辯, 何文煥編訂『歷代詩話』 藝文印書館, 民國 63年 4月 3版 pp. 442-443 참조.

作爲的인 면을 지적하였다. 그는 詩를 時代와 더불어 발전했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惡化一路로 치달렸다고 보았다. 비록 禪의 논리로써 詩를 파악하여 얻어낸 그의 이같은 詩論은 中國人の 復古的인 성향과 素朴한 인간성에 합치되어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가 漢代에서부터 盛唐까지의 시를 한데 묶어서 보려는 태도는 보통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대담한 주장이다. 그러나 그의 관점에서 보면, 人智가 발달하면 할수록, 社會가 開明하면 할수록, 국가가 혼란하면 할수록 인간의 心性이 상대적으로 暴惡해지거나 利己的인 입장이 되므로 적어도 시의 순수한 감정 세계에는 그런 汚染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교훈을 준다고 하겠다.

嚴羽는 또 唐詩를 唐初體(唐初體는 陳隋의 體를 답습한 것이다), 盛唐體(景雲 이후 開元·天寶期の 諸公詩), 大歷體(大歷十才子의 詩), 元和體(元白諸公의 詩), 晚唐體로 나누기도 했다.⁷⁾ 이는 詩의 內容과 形式上에서 唐代의 詩의 스타일이 變化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五分期는 사실은 時代的인 區分이라기보다는 詩의 性格變化에 따른 지적이며, 앞서 第一義의 詩를 漢代에서부터 盛唐까지로 보았으나 다시 唐初와 盛唐을 區分하여 盛唐의 시가 唐初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특히 大歷 이후의 시에 대하여는 詩體가 자주 변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盛唐詩人은 “영성한듯 하지만 영성한 곳이 없고, 졸렬한듯 하지만 졸렬한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大歷 이전에는 분명히 詩語가 다르고, 晚唐은 분명히 詩語가 다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⁸⁾

이와 같은 分期方法은 元明代에 와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元 楊士弘은 『唐音』에서 始音·正音·遺響으로 區分하여, 始音은 初唐四傑의 詩만을 들어 一卷으로 하고, 正音은 初唐 盛唐을 一類로, 中唐을 一類로, 晚唐을 一類로 하여 六卷으로 하였으며, 遺響은 諸家の 詩中에서 篇章이

7) 上同, 詩體 p.444.

8) 上同, 詩評 p.450, 「盛唐人有似龜而非龜處, 有似拙而非拙處」, 「大歷以前分明別是一副言語, 晚唐分明別是一副言語。」

參差하거나 音律이 不諧한 詩와 僧詩 및 婦女子의 詩를 모아서 七卷으로 하였다. 그러나 李白, 杜甫 그리고 韓愈의 詩에 대하여는 全集이 많이 刊行되었다는 이유로 除外시켰다.⁹⁾ 楊士弘의 견해는 音律上 四傑詩를 唐詩의 變化 始初로 보았고, 여기서 發展된 진정한 唐詩를 初·盛·中·晚唐으로 區分하여 正音이라 한 것이다. 그밖에 例外的인 詩를 遺響으로 돌렸으나, 그의 견해가 文人이 아닌 僧詩와 婦女子의 詩를 別途로 취급한 것이 合當한 것인가는 문제점으로 남는다. 어떻든 楊士弘이 唐詩를 音律的인 特性에서 파악하여 初·盛·中·晚唐으로 나누는 것은 나름대로의 一理있는 판단이다.

明代 高棟(1350~1423)의 『唐詩品彙』에서는 楊士弘의 上記와 같은 四分法을 더욱 세분하여 正始·正宗·大家·名家·羽翼·接武·正變·餘響·旁流로 나누고, 이를 初唐·盛唐·中唐·晚唐으로 大別하고 있다.¹⁰⁾ 그러나 高棟은 楊士弘보다 嚴羽의 시론에 더욱 영향을 받고 있음이 분명하다. 高棟은 대체로 初唐은 正始, 盛唐은 正宗·大家·名家·羽翼, 中唐은 接武, 晚唐은 正變·餘響으로 나누고, 方外才異人 등의 시를 旁流로 치고 있지만, 詩人의 生卒時期로 보아 다소간의 出入이 있다. 특히 그는 元和時代를 中唐으로 보지 않고 晚唐으로 본 것이 특이하다. 高棟의 이러한 區分에 대한 論說을 살펴보자.

唐 300년 간에 詩의 여러 體가 갖추어졌다. 그러므로 近體·古體·長短句·五七言律絕 등의 詩體들은 初期에 發興하고, 中期에 성숙되고 변화되었고, 末期에는 타락하지 않음이 없었다. 聲律·興象·文辭·理致에 있어서도 각기 品格의 高下가 같지 않았다. 으킨대 初唐·盛唐·晚唐의 差름이 있다. 자세히 區分하면 貞觀·永徽時期에는 虞世南·魏徵 諸人이 약간 舊習을 벗어났고, 王勃·楊炯·盧照鄰·駱賓王이 이에 더욱 美麗했고, 劉希夷의 閨帷의 作品, 上官儀의 婉媚한 詩體가 있었다. 이것이 初唐의 始制이다. 神龍 이후 開元初에 이르러 점차적으로 발전하여 陳子昂의 古體가 雅正하고 李嶠의 文章이 老練하고 沈佺

9) 『唐音』 文淵閣本 欽定四庫全書 1368 pp.173-176 참조.

10) 『唐詩品彙』 上海古籍出版社 1982年 8月 第1版 pp.2-3 凡例 참조.

期・宋之間의 新聲, 蘇頌과 張說의 大家손씨, 이들이 初唐의 漸盛이다. 開元・天寶時期에는 李白의 飄逸, 杜甫의 沈澁, 孟浩然的 清雅, 王維의 精緻, 儲光羲의 眞率, 王昌齡의 從俊, 高適・岑參의 悲壯, 李頎・常建의 超凡, 이들이 盛唐의 盛者이다. 大歷・貞元 中에는 韋應物의 雅澹, 劉長卿의 閑曠, 錢起・郎士元의 清曠, 皇甫冉의 冲秀, 秦系的 山林, 李嘉祐의 臺閣, 이들이 中唐의 再盛이다. 元和時代에 내려오던, 柳宗元의 超然復古, 韓愈의 文詞의 博大, 張籍・王建의 樂府가 故實을 터득했고, 元稹・白居易는 事實을 서술함에 분명하였고, 李賀・盧仝의 鬼怪, 孟郊・賈島의 飢寒함이 晚唐의 變化이다. 開成 이후에 내려오던 杜牧의 豪縱, 溫庭均의 綺靡, 李商隱의 隱僻, 許渾의 對偶, 그밖에 劉滄・馬戴・李頻・李群玉 등이 그래도 氣格에 힘쓰고 특히 時流에 邁進하였다. 이는 晚唐의 變態의 극치이나, 遺風과 餘韻은 아직도 이에 남아 있었다.¹¹⁾

이같은 高棟의 주장은 楊士弘의 初唐의 범위를 넓히어 두 分期로 하였고 開元・天寶時期를 盛唐, 大歷・貞元時期를 中唐이라 區分하고 元和 이후를 晚唐에 포함시켜 두 分期로 나누었다. 楊士弘의 分期와 다른 점은 元和 이후의 時期를 晚唐에 포함시킨 점이다. 이는 嚴羽가 唐初體・盛唐體・大歷體・元和體・晚唐體로 區分한 것과 같은 것이다.¹²⁾ 高棟은 盛唐詩를 頂點으로 보면서도 中唐 역시 盛唐과 같은 경지로 보았으나 元

11) 上同 pp. 8-9, 總序「有唐三百年, 詩衆體備矣. 故有近體, 往體, 長短篇, 五七言律詩絕句等藝, 莫不興於始, 成於中, 流於衰, 而殤之於終. 至於聲律與象文詞理致, 各有品格高下之不同. 略而言之, 則有初唐盛晚唐之殊. 詳而言之, 貞觀永徽之時, 虞魏諸公稍離舊習, 王楊盧駱因加美麗, 劉希夷有閨帷之作, 上官儀有婉麗之體, 此初唐之始製也. 神龍以還, 洎開元初, 陳子昂高風雅正, 李巨山文章宿老, 沈宋之新聲, 蘇張之大手筆, 比初唐之漸盛也. 開元天寶間, 則有李翰林之飄逸, 杜工部之沈澁, 孟襄陽之清雅, 王右丞之精緻, 儲光羲之眞率, 王昌齡之從俊, 高適岑參之悲壯, 李頎常建之超凡, 此盛唐之盛者也. 大歷貞元中, 則韋蔡州雅淡, 劉隨州之閑曠, 皇甫之冲秀, 秦公緒之山林, 李巨一之臺閣, 此中唐之再盛也. 下暨元和之際, 則有柳愚溪之超然復古, 韓昌黎之博大其詞, 張王樂府得其故實, 元白敘事務在文明, 與夫李賀盧仝之飛卿之孟郊賈島之飢寒, 此晚唐之變也. 降而開成以後, 則有杜牧之豪縱, 溫尚能綺靡, 李義山之隱僻, 許用晦之偶對, 他若劉滄, 馬戴李群玉, 李頻輩, 鬼怪, 龜勉氣格, 埒邁時流, 此晚唐變態之極, 而遺風餘韻猶有存者焉.」

12) 嚴羽가 지적한 晚唐期가 언제부터인가는 분명치 않지만, 大歷體, 元和體를 第二義의 詩로 본 점과 高棟이 開成을 前後하여 晚唐期를 二分한 점을 비교해 본다면, 서로 크게 상치되지 않는 것이다.

和 이후에는 그 성격이 달라졌다고 보았다. 嚴羽가 盛唐 이전의 시를 第一義로, 大歷 이후의 시를 第二義로, 晚唐詩를 聲聞辟支果라고 한 것과 비교해 볼 때, 高棅은 이러한 說에 따르지 않는 아니했지만, 元和 이후의 시에 더욱 人爲的인 詩體가 발생했음에 유의했고, 그것이 大歷 이후라고 본 것보다 더욱 타당하며, 사실 大歷十才子의 詩들의 特性이 별로 時代的으로 두드러진 性格이 없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元和 이후의 변화된 詩體를 頂點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의 變體로 보았다 하겠다. 다만 그것을 晚唐에 소속시킨 것은 비록 唐朝의 情勢가 이 때부터 그 이전과는 여러 면에서 달라져 있었으며 詩人의 詩風도 이에 따라 많이 달라져 있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唐詩의 새로운 氣風이라 볼 수 있으며 시의 質量으로 보아 嚴羽가 지적한 晚唐의 聲聞辟支果의 경지로 본 것과는 차이가 크다.

唐詩를 初·盛·中·晚唐으로 가장 분명하게 區分한 사람은 明의 沈騏(1640)의 『詩體明辯』 序에서이다.

唐은 詩로서 一代의 이름을 빛는데, 이는 넷으로 統分된다. 太宗·王績·魏徵 諸人이 먼저 草昧한 氣風을 개척했고, 陳子昂이 특히 澹古雄建함으로 一代의 기세를 振作시키고, 杜審言·劉希夷·沈佺期·宋之問·張說·張九齡 역시 각각 渾厚한 氣象을 갖추었다. 그러한 音節이 流暢한 가운데 盛唐은 점차 宏亮한 詩風을 드러냈다. 儲光羲·王維·孟浩然的 清逸, 王昌齡·高適의 閑遠, 常建·岑參·李頎의 秀拔, 李白의 郎卓, 元結의 奧曲이 모두 특히 뛰어나서 비교할 만한 것이 적다. 그러나 杜甫는 유독히 雄渾·高古하여 스스로 一家를 이루었으니 詩史라 할만하고 詩疏라 할 만하다. 그의 詩史를 말함은 가장 절실하여 古時人의 뜻에 부끄러움이 없다. 아마도 詩의 드문 인물이라라. 中唐은 雕琢을 자랑하였다. 劉長卿이 古朴함을 개척하였으나, 韋應物·錢起的 雋邁, 盧綸·顧況·劉禹錫이 더욱 노력하여 元結과 白居易의 唱和한 作品, 韓愈와 柳宗元의 古風, 張籍·賈島·孟郊의 清刻, 李賀의 怪險이 最高의 경지에 이르렀다. 晚唐의 詩體는 더욱 雕琢에 힘썼다. 杜牧은 高爽하여 老杜를 추구하려 했고, 溫庭均·李商隱의 西昆體는 婉麗함을 스스로 좋아했고, 皮日休·陸龜蒙의 鹿門 諸章이 가끔 超越하는 면이 있었다. 대저 詩餘(詞)에 있어서는 李白에서 시작되어 晚唐에 성행했는데 晚唐의 詩는 詞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역시 각각 아름다

음이 있다.¹³⁾

沈騏는 唐詩를 發展과 衰退라는 관점에서 각 時期의 主要詩人을 실례로 들어 氣象論的인 지적을 하고 있고, 初·盛·中·晚唐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그 時期를 정확하게 지적하지는 아니했다. 다만, 그는 盛唐詩 특히 杜甫의 詩를 가장 높이 평가했고, 初唐의 발전된 詩風이 盛唐의 여러 風格의 詩人을 배출하였다고 보았으며, 中唐 이후에는 雕琢에 힘쓰게 되어 盛唐과는 변질되었고, 비록 여러 시인들이 배출되었으나, 그것이 修辭的이라는 면에서 약간 否定的인 견해를 나타냈고, 그 餘勢가 晚唐의 婉麗한 시풍을 이루었다고 보았다.

文學作品은 다른 기록과 달리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여 독자에게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가가 다른 기록과 다르다. 따라서 작자의 관심은 비록 자기 자신의 心情을 文學的으로 표현하였다 하더라도 독자에게 感動을 주게 표현하여야 한다. 따라서 唐代의 文人이 ‘무엇’에 많은 관심을 두었고, ‘독자’가 누구를 향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할 뿐 아니라 같은 대상을 어떻게 표현해야 독자가 호감을 갖게 되는가도 문제가 된다. 이런 점에서 唐代의 詩는 무엇(內容)에 重點을 두어 分期할 수도 있고, 어떻게(表現)에 重點을 두어 時期區分을 할 수도 있으며, 또 그 詩의 評價를 달리 할 수도 있다.

以上の 諸說은 각기 唐代라는 時代의 많은 詩에 각 時期別로 特性을

13) 徐師曾纂『詩體明辯』廣文書局, 民國 61年 4月 初版, 序 pp.24-28 「唐以詩名一代而統分爲四. 太宗王魏諸人, 首開草昧之風, 而陳子昂特以澹古雄健, 振一代之勢. 杜審言劉希夷沈佺期宋之問張說張九齡, 亦各全渾厚之氣, 于音節疎暢之中, 盛唐稍著宏亮, 儲光羲王維孟浩然之清逸, 王昌齡高適之閒遠, 常建岑參李頎之秀拔, 李白之朗卓, 元結之奧曲, 咸殊絕寡倫, 而杜甫獨以雄渾高古, 自成一家人可以爲史, 可以爲疏. 其言時事, 最爲悚切, 不愧古詩人之義. 蓋亦詩之僅有者也. 中唐彌矜琢鍊, 劉長卿以古樸開宗, 韋應物錢起之雋邁. 盧綸顧況劉禹錫之揚厲, 及元白唱和之作, 韓柳古風之體, 張籍賈島孟郊之清刻, 李賀之怪險, 是其最也. 晚唐體愈雕鏤, 杜牧高爽, 欲追老杜. 溫李西昆之體, 婉麗自喜. 皮陸鹿門諸章, 往往超勝. 若夫詩餘之體, 肇于李白, 盛于晚唐, 然晚唐之詩, 不及其詞, 亦各有其媿也.

나타내는 作家를 중심으로 詩의 變化過程을 그 나름대로 정리하였다고 할 수 있다.

Ⅲ. 唐詩 分期에 대한 異論

앞서 例擧했던 唐詩의 分期에 대하여 既往에도 異論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지 아니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中國文學이 文學的으로 專門 研究되면서 唐詩의 時期區分문제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으나 그래도 四分期 방법을 가장 많이 채용하고 있다. 물론 앞서 설명했던 갖가지 說이 똑같은 것도 아니었고, 또 그들의 觀點이 달랐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唐代라는 社會에서 唐詩가 차지하는 重要性, 그리고 그들이 變化發展된 사실(여기서 發展이란 말은 時間의 經過에 따른 展開라는 뜻이다)을 文學的인 特性에 따라 각자의 觀點에서 설명했으며 그 설명이 어느 정도 共通性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既往의 分期에 反對한 사람으로는 먼저 明代의 王世懋(1536~1588)의 說을 들 수 있다.

唐律은 初唐에서부터 盛唐으로, 盛唐에서부터 中唐으로, 中唐에서부터 晚唐으로 時代의 聲調가 생겨났으므로 자연히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또한 初唐을 통하여 盛唐이 변한 것이고, 盛唐을 통하여 中唐이 변한 것이며, 中唐을 통하여 晚唐이 변한 것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변한다는 것은 점차로 그렇게 된다는 말이다. 점차로 그렇게 되지 않다면 변할 수도 없다. … 唐詩가 初唐에서부터 盛·中唐이 된 것은 막다른 盛衰의 限界이다. 그러나 王維·錢起는 사실은 서로 和酬하였고, 杜甫의 全集은 半이 大歷以後의 作品이다. 그 사이에 變化를 말할 수도 있다. 王維의 明到衡山篇, 嘉州函潘溪句는 은연히 錢起·劉長卿·盧綸·李嘉祐 間에 든다. 大歷十才子에 이르러서는 그 사이에 어찌 盛唐의 詩句가 없겠는가? 대저 聲氣는 오히려 서로 契리되지 않는다. 學者는 各各히 格調에 兪격해야 하지만, 반드시 盛唐人은 한 마디도 中唐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中唐人은 한 마디도 盛唐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역시 그의 詩를 말함은 꼬집불통이리라.¹⁴⁾

14) 『秬圃擷餘』文淵閣本 欽定四庫全書集部 1482—p.512. 「唐律由初而盛, 由盛

이러한 제기는 상당한 타당성을 지닌다. 詩의 格調가 時期에 따라 변하기는 하지만, 分期를 한다고 하여 前後時期의 格調가 확연히 변할 수는 없다. 그러나 時期의 變遷에 따라 점차적으로 詩格도 변하기 때문에 더우기 分期에 相關되는 인물의 경우를 어느 詩格에 고정시킨다는 것은 어려워, 다른 分期 인물 중에서도 格調가 같을 수도 있고, 同期의 詩人이라 하더라도 格調가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역시 그 時期의 特性을 나타내는 格調와 그 격조에 相近한 인물을, 비록 時代的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같이 묶어서 分期를 할 수밖에 없다 하겠다. 格調 역시 時代에 따라서 作者나 社會의 狀況이 作品상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清代의 錢謙益(1582~1664)은 또다른 각도에서 唐詩의 分期問題에 異議를 제기했다.

初·盛·中·晚은 宋代의 嚴羽에서 시작되어 明初 高棅에서 이루어졌지만, 誤謬로 점철됨이 이어 三百年이다. 이른바 初·盛·中·晚이란 그 世代를 論함인가? 그 사람을 論함인가? 사람을 가지고 세대를 논한다면 張說은 세대로는 初唐의 宗匠이나, 岳州 以後부터 詩章이 悽惋하여 江山의 도움을 받은듯 하니, 初·盛唐을 겸하였고, 張九齡은 荊州 以後에는 같은 조의 諷詠의 詩이며, 더욱 暮年의 作이 많으니, 그 역시 初·盛을 겸하였다. 張說은 初唐에 속했다 하고, 岳州 이후의 시까지 소급한다면, 孟浩然 역시 盛唐과 初唐을 겸하였다. 王維는 盛唐에 속했으나, 「酬春夜竹亭」의 贈詩나 「左掖梨花」詩를 같이 본다면, 錢起·皇甫冉도 中唐·盛唐을 겸한다. 한 사람의 실세가 두 時期를 겪고 있으면, 詩가 사람의 다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時代의 뒤가 될 것인가? 15)

而中，由中而晚，時代聲調，故自必不可同。然亦有由初而返盛，盛而返中，中而返晚者，何則？返者，漸之變也。非返故，無由變。… 唐詩之由初而盛中，極是盛衰之界然王維錢起實相酬唱。子美全集半是大歷以後，其間返漏，亦有可言。如王右丞明到衡山篇，嘉州函番溪句，隱隱錢劉盧李之間矣。至於大歷十才子，其間豈無盛唐之句？蓋聲氣猶未相隔也。學者，固當嚴於格調，然必謂盛唐人無一語落中，中唐人無一語入盛，則亦固哉！其言詩矣。

15) 顧茂倫『唐詩英華』錢謙益序「初盛中晚，蓋創於宋季之嚴羽，而成於國初之高棅，承謬踵謬，三百年於此矣。夫所謂初中晚，論其世也？論其人也？以人論世，張燕公曲江，世所稱初唐宗匠也。燕公自岳州以後，詩章悽惋，傳得江山

이러한 계기는 詩人이나 詩를 중심으로 分期를 한다 하더라도, 더우기 分期의 中間에 살았던 사람은 兩期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대체로 그 詩人의 詩風의 特性을 어느 時期에 넣어야 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된 문제이므로 큰 논란이 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李賀의 경우 韓愈보다 10년 먼저 죽고 白居易보다는 30년이나 일찍 죽었는데, 그는 韓愈나 白居易보다 뒤늦게 晚唐風의 인물로 지목되는 것은 그의 詩의 特性 때문이다.

近來에 學者들도 이 唐詩의 分期問題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관점이 달랐다. 胡適(1891~1962)은 『白話文學史』에서 初唐은 白話文學期라고 하면서 王梵志와 王績을 대표로 들면서 初唐四傑 역시 白話의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고, 盛唐時期를 兩分하여 天寶大亂 以前을 浪漫文學時代, 大亂 以後부터 中唐의 韓·孟·元·白을 寫實文學時代로 區分하였다.¹⁶⁾

陸侃如·馮沅君의 『中國詩史』에서는 唐代 全體를 李白과 杜甫를 중심으로 兩分하여, 初唐과 天寶 前의 詩歌를 일괄적으로 李白의 詩風으로, 天寶 後부터 晚唐까지를 일괄적으로 杜甫의 詩風으로 돌렸다.¹⁷⁾

胡雲翼 역시 그의 『中國文學史』(1962年 初刊)에서 初·盛·中·晚唐의 分期가 어떤 精確한 이유와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특히 中間의 唐詩 發展時期를 盛·中唐으로 區分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하여 初唐부터 齊梁의 綺麗한 풍조가 계속된 80~90년 간을 第一期(初唐詩), 玄宗 때부터 穆宗 長慶時期까지 100여년 간을 唐詩의 가장 흥성하고 발전된 時期로 보아 第二期(盛唐詩), 그 이후 60~70년 간을 唯美主義風潮

之助, 則燕公亦初亦盛. 曲江自荊州以後, 同調諷詠, 尤多暮年之作, 則曲江亦初亦盛. 以燕公系初唐也, 邇岳陽唱和之作, 則孟浩然應亦盛亦初. 以王右丞系盛唐也, 酬春夜竹亭之贈, 同左掖梨花, 則錢起皇甫冉應亦中亦盛. 一人之身, 更歷二時, 將詩以人次耶? 將人以詩次耶? | 清代文學批評資料集(上) 成文出版社 民國 67年 9月 1日 p. 25.

16) 胡適의 견해(白話文學史, 文光圖書有限公司印行, 民國 63年 10月 再版 pp. 153-168)는 앞서 언급한 (註 1) 참조) Stephen Owen의 견해와는 相反된다.

17) 陸侃如·馮沅君 合著 『中國詩史』(刊記年代未詳) 篇三, 四 pp. 403-522 참조.

時期라 하여 第三期(晚唐詩)로 區分하였다.¹⁸⁾

그러나 胡雲翼은 몇년 후에 『唐詩研究』(1967년 初刊)라는 책에서는 또다시 初·盛·中·晚의 四分期가 妥當하다고 수정하였다.

唐詩의 變遷發展을 보면 初唐期에는 뚜렷하게 齊梁의 遺風이 있었으며, 盛唐期에는 新舊體詩 發展의 最盛期이며, 中唐期에는 盛唐을 통하여 변하고 다시 변하여 新體詩로 발전한 限界에 달했고, 晚唐期에는 新體詩 最後의 불꽃으로 唐詩의 末期이다. 간단히 말해서, 唐詩의 發展은 全體的인 脈絡에서 이루어졌으나, 唐詩의 變遷은 唐詩를 起·盛·變·衰의 波浪線上에서 이루어졌고, 우리는 이 波浪線上에서 唐詩를 네 개의 分期로 삼아도 무방하다.¹⁹⁾

결국 胡雲翼은 唐詩의 唐詩的인 特性이 잘 드러난 盛·中唐을 한데 묶는 것은 일면으로 타당하지만, 자세히 그 변천과정을 살펴 볼 때 이를 區分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上記와 같이 初唐 80~90년 간, 盛唐 100여년, 晚唐 60~70년의 區分을, 初唐 100년 간, 盛唐 50여년, 中唐 70여년, 晚唐 80여년으로 區分하였던 것이다.

宋代 嚴羽와 똑같은 時代區分을 하면서도 嚴羽와는 正反對의 견해를 피력한 사람은 郭紹虞이다. 그의 說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齊梁의 文風이 殘存하고 있던 初唐은 陳子昂의 復古의 기지로 변혁된다. 그는 ‘風骨’과 ‘興寄’를 주장했고 風骨은 內容이 있어야 뼈가 있다 함이요, 興寄란 寄托과 比喻로 現實을 暴露함이라고 해석되며 唐詩의 진정한 가치는 修辭보다는 內容, 사실 자체보다는 잘못된 사실을 폭로하는 데 詩의 價値가 있다. 李白과 杜甫는 이런 면에서 성공은 하였지만, 그래도 형식적인 구속을 받았으며, 그러나 李白보다는 杜甫가 더욱 現實的인 입장을 잘 대변하였다. 하지만 白居易는 李·杜를 비판하여 그들의 風雅의 作品은 10분의 1.2도 못된다고 지

18) 胡雲翼, 『中國文學史』 第一文化社, 民國 51年 7月 p. 117 참조.

19) 上同, 『唐詩研究』 臺灣 商務印書館, 民國 56年 3月, p. 36 「唐詩의 變遷發展, 初唐顯然是齊梁的遺風. 盛唐是新舊體詩發展的最高潮. 中唐則由盛唐而一變再變, 變到新體詩發展之極. 晚唐則完全是唐新體詩最後的閃爍, 顯然是唐詩的末運到了. 簡單地說一句, 唐詩의 發展, 固成整個脈絡, 但唐詩의 變遷, 把唐詩弄成了一根起盛變衰的波浪線, 我們根據這種波浪線, 而分唐詩爲四個時期是無妨的.

직하고 진실로 현실을 폭로하는 시를 쓰려고 했고 실제로 현실을 폭로한 시를 썼으며, 陳子昂보다도 명확한 詩觀을 가졌다. 元稹 역시 白居易와 같은 입장이었지만 그는 현실도피적인 시도 썼다.²⁰⁾

이같은 論說은 詩를 特性別로 分期한 것이 아니고 몇몇 특수한 시인의 주장이나 시의 경향을 현실적인 입장에서 파악한 것이며, 그것이 일견 一貫되게 整然한 論理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唐詩의 全體的인 입장에서 볼 때, 단지 시의 현실을 暴露하거나 反映하는 데 기준을 두고 논리를 전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는 相反되는 많은 詩人群의 特性을 지적하기에는 미흡할 뿐 아니라 晚唐의 시의 경향에 대하여는 전혀 거론이 없다. 郭의 說에 의하면, 詩가 初唐에는 修辭的이며 風骨이 결핍된 것이었는데 점차로 風骨과 寄興의 주장이 시에 반영되어 李·杜에 와서 성공했고, 元·白에 이르러 最高의 정지를 이룬 것으로 보았다. 嚴羽가 盛唐 以前을 第一義의 시로 본 것도 시의 수사적인 경향이 그대로 素朴하고 自然스러웠으며 그 詩가 사물이나 현실을 순수한 감정에서 直視에 의하여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 한 것이고, 大歷 이후의 시를 第二義의 詩로 본 것은 감정이 순수한 입장에서 표출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어떤 사실을 드러내려는 作爲性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郭紹虞의 견해는 시의 수사성은 반대하였으면서도, 그것이 현실의 비판적인 내용을 강조하는데 가치를 부여하여 嚴羽와는 반대로 第二義의 詩가 가장 바람직한 시로 보았다. 시의 形式的인 雕琢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감정의 意圖的인 表現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따라서 순수한 文學的 입장에서 본다면 郭紹虞의 說은 唐詩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아니했고, 자기의 주장을 合理化하기 위한 논리를 전개시킨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郭紹虞의 說은 唐詩를 단순한 정서적인 차원이 아닌 現實的 입장에서 內容에 중점을 두고 현실의 反映에 유의했다는 점에서 嚴羽와 같은 ‘以禪論詩’의 觀念的 방법에서 벗어났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唐詩가

20) 郭紹虞, 『中國文藝思潮史』 宏業出版社 1945年版 影印刊 pp.95-105 참조.

발전해온 한 엄연한 과정이기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설득력을 갖게도 했다. 따라서 郭氏의 說에 따르면서도 郭氏가 소홀하게 생각했거나 도의지한 시에 대하여 유의하면서도 다른 방법으로 文學史의 記述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앞서 지적했던 陸侃如와 馮沅君의 『中國詩史』에서 唐 前期를 浪漫主義 詩風으로 李白을 頂點으로 삼고, 後期를 寫實主義 詩風으로 杜甫가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려는 방법이 바로 그런 例이다.

이와 비슷한 방법의 文學史 記述이 劉大杰의 『中國文學發達史』이다. 그는 唐詩의 發達을 다음과 같이 項目을 나누어 記述하고 있다.

十三章：初唐의 詩壇

- 一. 宮體詩의 餘波
- 二. 王績과 王梵志
- 三. 上官儀와 四傑
- 四. 沈宋과 文章四友

十四章：浪漫詩의 產生과 全盛

- 一. 緒說
- 二. 陳子昂과 吳中四士
- 三. 三孟詩派
- 四. 岑高詩派
- 五. 浪漫派의 代表詩人

十五章：社會詩의 興衰와 唯美詩의 復活

- 一. 緒說
- 二. 杜甫의 生平・思想 및 그 作品
- 三. 元白의 文學思想과 作品
- 五. 孟韓의 詩風
- 六. 唯美詩의 復活과 唐詩의 結束²¹⁾

이러한 文學史의 記述方法은 각 時代의 文學的 特性을 살리면서 劃一

21) 劉大杰, 『中國文學發達史』中華書局 1959年 11月版, 目次 및 目次에 따른 기술 내용 참조 pp. 371-491.

的인 分期를 하지 않고 全體的으로 시의 경향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것이다. 이를 郭紹虞의 說과 관련하여 보면, 劉大杰은 盛唐의 李白과 杜甫의 시풍이 아주 다른 점에 유의하여 李白은 浪漫派의 代表者로 杜甫는 社會詩의 興行者로 보고, 이들의 前後詩人들의 流派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와 相關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郭은 李白과 杜甫는 현실적인 시인이긴 하지만 杜甫가 보다 現實批判的이고, 그들은 같은 盛唐의 인물의 특징을 드러내며, 白居易는 명실공히 현실에 卽한 現實暴露의 大詩人으로 보았다.

이와 비슷하게 시의 特徵的 流派를 나누는 다음과 같은 說도 있다고 梁石은 그의 『中國詩歌發展史』(1976. 10 刊)에서 소개했다.²²⁾

- (1) 綺靡派——以沈·宋及四傑爲代表.
- (2) 反動派——以陳子昂·張九齡等爲代表.
- (3) 邊塞派——以王昌齡·岑參爲代表.
- (4) 自然派——以王維·李白爲代表.
- (5) 社會派——以杜甫·白居易爲代表.
- (6) 怪誕派——以孟郊·賈島·韓愈爲代表.
- (7) 脂粉派——以李商隱·杜牧爲代表.

그러나 梁石은 이렇게 流派를 나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가 唐詩를 記述할 때는 대체로 初·盛·中·晚唐의 分期에 의하였다. 이러한 시의 유파를 분류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시가 모두 그러한 경향을 띤 것도 아니고, 이러한 詩派를 時代的으로 區分하여 설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래의 四分期의 방법이 지금도 普遍的으로 唐詩를 分期하여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華仲麀의 『中國文學史論·唐代文學』, 葉慶炳의 『中國文學史』, 『唐詩講論』, 顧俊의 『唐詩通論』, 심지어 大陸에서 나온 游國恩 등이 편한 『中國文學史大綱』에서도 대체로 이 방법을 사용

22) 梁石, 『中國詩歌發展史』經氏出版社, 民國 65年 10月, p.170 참조.

하고 있다. 최근에 여러 사람들에 의해 집대성된 『中國文學講話(6)·隋唐文學』에 있어서도 역시 四分法에 의하고 있음을 볼 때 四分期로 唐詩를 논하는 것은 이제는 아주 일반화 되었다고 보겠다.²³⁾

IV. 唐詩 以外の 文學의 경우

唐代는 詩로 대표되기는 하지만 한 時代의 文學이 어느 한 장르에만 국한되어 발전하지도 않고, 또 한 文人이 어느 한 장르의 作品만 著作하는 것도 아니다. 어느 文學장르가 성행하게 되면 다른 文學장르가 쇠미하게 되기 마련이고, 어느 文學장르에 뛰어난 문인은 다른 文學장르에는 별로 뛰어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한 時代의 文學史의 時期區分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文學장르가 어떻게 興盛衰微한 것인가를 살펴보면, 그것은 다른 文學장르의 흥성쇠미와 상관되고 있으며, 어느 文學장르가 더 이상의 발전을 못할 때 새로운 文學장르가 탄생되기도 한다. 그것은 문인 자신의 취향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으나, 社會環境이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일반대중, 즉 文學의 讀者層이 그렇게 되길 원하는 입장에서 이루어 지기도 한다.

따라서 어느 한 朝代의 文學을 時期區分하는 데 있어서 他文學장르의 발전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그 時代의 주된 文學장르의 時期區分에도 필요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唐代의 詩 以外の 文學장르의 發展時期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기로 한다.

駢文; 唐代의 駢文은 六朝의 修辭的인 형식을 그대로 이어받아 文人

23) 華仲慶, 『中國文學史論』 開明書局, 民國 54年 11月 pp.184-259 참조.

葉慶炳, 『中國文學史』 弘道文化事業有限公司, 民國 55年 11月 pp.175-294 참조.

顧俊, 『唐詩通論』 木鐸出版社, 民國 72年 4月, pp.11-14 참조.

中華文化復興運動推行委員會及國家文藝基金管理委員會主編, 中國文化講話(六) 隋唐文學, 巨流圖書公司, 民國 74年 11月, pp.34-314 참조.

에게 널리 통용되었다. 특히 文人의 公務的인 文書나 文人 間의 私的인 書信까지도 駢文은 널리 사용되어 ‘時文’이라고 불렸다. 四六句의 고정된 틀에 對偶와 聲律까지 맞추면서 典故의 사용으로 자기의 文才를 과시하는 이러한 詩文은 六朝 齊梁·隋에 걸쳐 일부 문인의 반발도 있었으나, 社會에서 문인들이 실제로 이에 의한 문자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陳子昂이 風骨을 주장한 것이나, 張說·鍾迥의 詩文에 힘이 있다고 한 것은 형식적인 수사에서 벗어나 내용적인 사실을 중시했다 함이다. 錢穆이 古文運動을論하면서 먼저 古詩運動을 언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元結·獨孤及·蘇穎士 등이 駢文을 反對한 것도 여기에 있으며, 李白의 詩가 자유분방한 樂府體로 나아간 것도 이에 대한 반발로 보았다.²⁴⁾ 그러나 駢文은 貴族社會를 대표하는 문체이며 품위를 갖추고 행세하는 상류계급의 도구였다. 따라서 柳冕이나 韓愈·柳宗元이 古文을 제창하였어도 여전히 唐代의 駢文은 時文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점차로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다. 李白의 「春夜宴桃李序」와 『文心雕龍』의 「序志篇」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唐代의 駢文은 唐詩의 駢文이 修辭的인 면에서 內容的인 면으로 변화발전하였고, 결국은 韓愈와 柳宗元의 古文運動으로 인하여 격식이 아주 달라지게 된 것이다.

古文; 駢文의 變質과 古文의 興起는 관련이 깊다. 駢文의 반대로 나타난 현상이 古文의 형태이기 때문이다.²⁵⁾ 駢文의 형식을 위주로 한 수사에 치우친 점에 반대한 韓愈와 柳宗元의 古文運動은 실은 內容을 위주로 하고 수사는 內容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형식을 탈피해야 된다고 하던서 이른바 ‘道’를 중시하였어야 한다는 움직임이었다. 韓愈가 儒家

24) 錢穆, 雜論唐代古文運動, 『中國古典文學論文精選叢刊』 幼獅文化事業公司, 民國 68年 7月, pp.93-146 참조.

25) 張仁青, 『中國駢文發達史』 臺灣 中華書局, 民國 56年 6月, p.103 및 拙稿 ‘唐代 古文論에 대한 問題點’ 『中國學報』 25집, 1985年 3月 pp.103-118 참조.

에 치우친 반면, 柳宗元은 보다 포괄적인 ‘道’를 주장하였다. 결국 唐文은 平·奇, 駢·散, 難·易의 문제로 귀결되는데²⁶⁾, 韓愈의 경우는 奇→散→難의 길을 택했다면, 柳宗元은 平→散→易의 길을 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古文運動은 韓愈가 儒道에 치우쳐 평이함보다는 험난한 길을 택했다면, 柳宗元은 험난함보다는 평이함을 택했다고 할 수 있다. 韓愈가 治者의 입장을 대변하여 儒道를 내세운 반면, 柳宗元은 被治者의 입장을 대변하여 人道를 내세웠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성격은 달랐지만, 그들이 治者의 입장이건 被治者의 입장이건 駢文으로서는 그들의 심정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散文運動을 일으켰다 할 수 있다. 古文의 流行과 社會詩의 發展은 이런 점에서 相通한다. 元稹과 白居易의 社會詩 혹은 寫實主義 詩는 평이함을 택한 것도 있으나 험난함을 택한 것도 있다. 다시 말하면, 韓愈의 怪誕的인 南山詩와 柳宗元의 山水詩 사이에는 커다란 성격적인 차이가 있다. 이는 時代的으로 개인적인 문인에게 二重構造가 있음을 나타내는 점이다. 같은 文學장르의 성격변화는 同時代 문인의 다른 文學장르에도 상관적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므로, 韓·柳의 古文運動과 同時代 元·白의 社會詩 혹은 新樂府詩가 부각됨은 그 時代의 性格을 代辯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小説：唐代의 小説은 六朝의 神怪小説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허무맹랑한 幻想的 기록이 아니라, 意識的인 創作物이라는 데 큰 차이가 있다. 또한 唐代의 傳奇小説은 六朝의 神怪小説보다 表現技巧나 取材에 있어서 상당히 달라졌다. 唐代에도 神怪的인 小説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보다 寫實的이고 논리가 정연한 표현으로 변했고, 初期의 소설과 後期の 소설은 文體上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初期에는 駢體文의 서술이었는데 비하여 후기에는 散文的인 표현이었다. 따라서 鄭振鐸은 “唐代의 傳奇文은 古文運動의 한 附庸이었으나 거기서 豁然히 大國을 형성하여 中國文學史上의 지위는 蘇穎士·李羣·韓愈·柳宗元의 散文보

26) 上掲『中國文學講話』(六) 第三篇 ‘唐代古文的發展與演變’ p. 322 참조.

다 오히려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것은 古文運動이 이룩한 가장 성공한 作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²⁷⁾ 이는 唐代 傳奇小說이 古文運動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한 文學作品으로 인정한 것이다. 唐代의 傳奇小說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神怪故事·戀愛故事·豪俠故事로 나눌 수 있다. 唐代에는 道教·佛教가 성행하였고, 女性의 개방적인 기풍이 있었으며, 藩鎮의 叛亂이 잦았기 때문에 이러한 故事가 傳奇로 기록되었던 것이긴 하지만²⁸⁾, 이와 같이 신괴적이고 단편적이던 六朝小說의 題材가 다양해지면서 초기에는 駢體로 쓰였으나, 그것이 현실적인 상황의 인위적인 창작물이기 때문에 駢體로 쓰기가 곤란하였고, 古文運動이 일어나자 더욱 사실적인 표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唐 傳奇가 대부분 後期の 作品이요, 初期의 作品이라 하더라도 駢體的인 요소가 점차 히물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變文; 唐代의 變文은 佛教를 전파하기 위하여 佛經을 번역하거나 佛教故事를 기록한 내용인데, 上記 駢文, 散文, 小說이 士大夫와 文人을 위한 作品이라면 變文은 民間의 불교신앙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룩된 作品이라는 데에 차이가 있다. 變文은 唐 中期에 士大夫의 詩文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보아 상당히 일찍부터 이러한 기록이 있었다고 추측되지만, 실제로 이것이 유행되기는 宋代에서 부터이며, 唐代의 變文은 비록 民間을 대상으로 佛教故事가 駢文體로 쓰여졌다 하더라도, 중간에 詩歌가 삽입되어 있으며, 散文體보다는 오히려 駢體로 된 것이 唐代에는 많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그 駢體는 상당히 口語體的인 요소가 많고 직접화법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여 宋代의 話本小說의 濫觴이 되었다.²⁹⁾ 變文이 唐代의 佛教의 盛興과 더불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口語

27) 鄭振鐸, 『挿圖本 中國文學史』, 文學古籍刊行社, 1969年 2月 p.493 참조.

28) 譚正璧, 『中國小說發達史』 啓業書局, 民國 67年 9月 臺 4版 pp.139-141 참조.

29) 鄭篤, 『中國俗文學史』 臺灣商務印書館, 民國 71年 11月 臺 6版 pp.180-190 참조.

體적이면서도 駢體의 요소를 지닌 이유는 암송하기 쉽고 읽기 쉽게 하려는 의도에서였다고 하겠다. 變文의 정확한 發生年代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唐 中期 이후에는 이러한 佛教故事의 變文이 民間에 퍼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詞; 詞는 詩餘 또는 長短句로 불리는데, 宋代의 대표적인 文學형태로 발전하였지만 이미 唐 中期에 지어졌다고 함이 通說이다. 李白의 作品으로 알려진 「菩薩蠻」이나 「憶秦娥」가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大歷 이후에 문인들이 약간씩 長短句를 시도했음이 作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長短句의 출현은 민간음악의 율조에 따라서 唐詩를 平易한 내용으로 作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 題材나 表現이 사극 白話的이며 通俗的인 경향을 띠고 있음은 일반 민간에서 이러한 곡조의 노래 가락에 맞추어 지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中唐의 劉禹錫·白居易의 「楊柳枝」, 「竹枝詞」, 「浪淘沙」, 「憶江南」 등은 唐詩와 비슷하면서도 새로운 느낌을 갖게 한다. 거의 五·七言詩에 약간의 변화를 가했기 때문이다. 1899년에 敦煌石窟에서 발견된 『雲謠集』은 唐代에 알려지지 않은 民間의 文人의 手寫本 詞集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³⁰⁾ 거기에는 약 30수의 唐詞가 실려있는데 白話的인 詞語로 五七言 長短句가 많고, 宋詞와 거의 다름 없는 作品도 있다. 이들의 著作年代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唐 玄宗 開元·天寶時期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宋代에 全盛을 이루었던 詞文學은 唐代 盛唐時代의 民間의 노래에서부터 유래되었다 할 수 있다. 다만 문인들에 의하여 이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끌게 되고 作品이 창작된 것이 五代를 거쳐 宋代에 보편화되었다 하겠다.

이 밖에도 辭·賦體의 作品이 여전히 唐代에서도 지어졌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것들에서 마북 내용상이나 용어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도 있겠으나, 형식·내용상의 質量으로 보아 唐代의 文學을 대표할 수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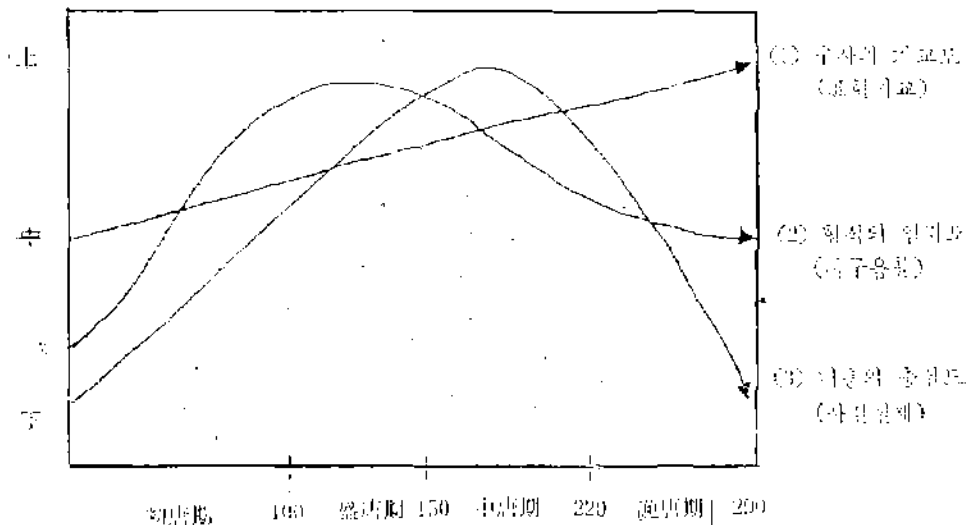
30) 車柱環, '雲謠集研究', 學術院論文集 第23輯 1984.12. pp.107-149 참조.

을 만큼 그 特性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V. 結 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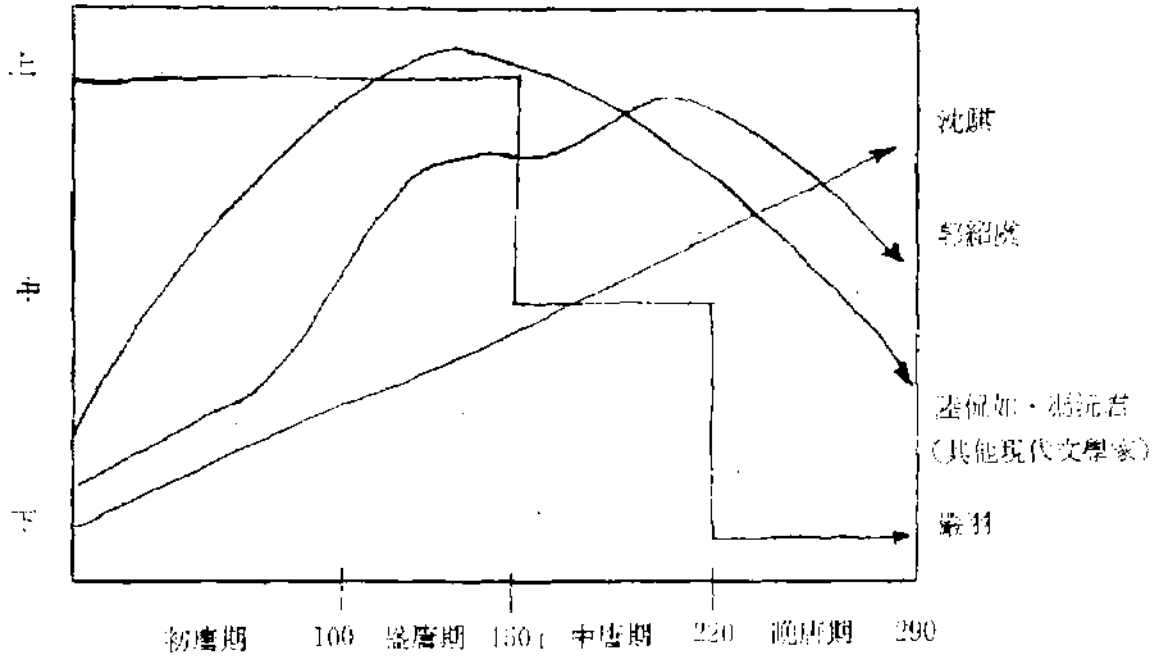
筆者는 以上에서 唐代文學의 時期區分 문제를 唐詩에 대하여 다른 既往의 說과 최근의 說까지 다시 時期的으로 검토해 보았고, 그 밖의 文學 장르에 대하여도 간략한 發展過程을 살펴 보았다. 唐代에 시를 쓴 사람이 2,200여명이라 집계되었으니, 그 밖의 文學 장르에 쓴 詩人까지를 합친다면, 文學作家의 수는 3,000여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논의된 作家는 50여명이다. 이러한 인물을 다시 四分期로 나누어 보면 各分期에 소속되는 사람은 10여명에 불과하게 된다. 그런데도 이를 보는 각도가 전혀 다르기도 하고, 分期에 대한 異論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았건 간에 대부분의 時期區分이 四分期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二分期 또는 六分期로 나눈다 하여도 결국은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면 그게 그것임을 알 수 있다. 以上の 諸說에 대하여 알기 쉽도록 圖表를 그려 보기로 한다.³¹⁾

[表 1] 唐詩 作品의 特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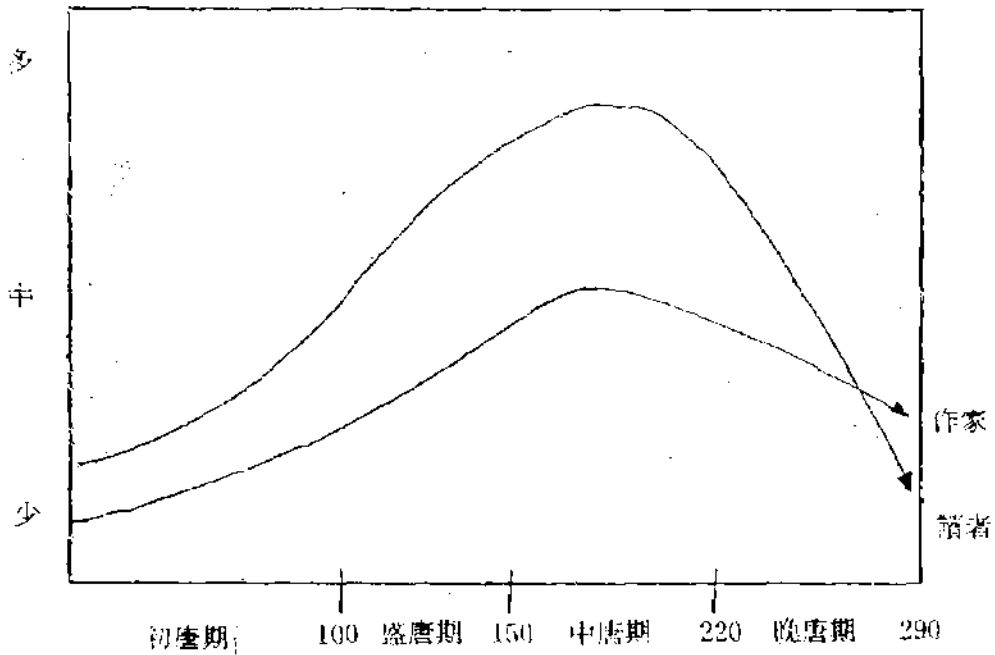


31) 文學의 發展趨勢나 性格, 혹은 어느 作品의 경향을 도표로 표시하기란 곤란한 점이 많다. 그러나, 만약 그 도표가 여러 사람의 연구결과를 종합하

[丑 II] 唐詩 評者의 反應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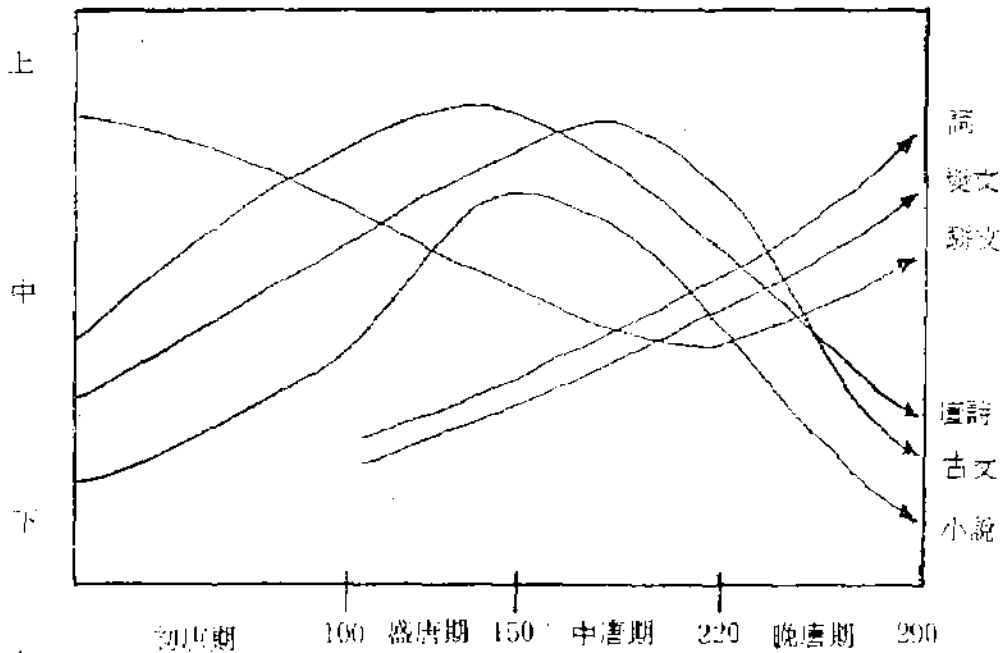


[丑 III] 作家와 讀者와의 關係



여 그러대로 어떤 특성이나 경향을 시각적으로 감지할 수가 있다면, 보는 사람에게 가장 명확한 인상을 직각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西歐의 文學研究人들이 가능한 정확한 도표를 그려내기 위해 어떤 作品에 쓰인 單語의 音節數, 品詞別 頻度, 또는 文章의 長短, 文學의 構造的인 分析을 통하여 도표화하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예로, Whelm Fuck, 'Possibilities of exact style Analysis' 『Patterns of Literary Style』 Yearbook of comparative criticism III.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71. pp.50-76 참조.

[表 IV] 各文學 장르의 發展狀



이와 같은 既往의 說에 의한 圖式化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詩를 보는 각도를 달리하여 主觀的으로 특수한 作品이나 詩人을 선택하여 자기의 견해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作家의 作品性 向은 한 作家도 연령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또 相反되는 形式의 作品을 쓰기도 했다. 예를 들어 白居易나 元稹은 아주 평이하고 간결하며 진솔한 시를 쓰기도 했고 형식에 구애를 받지 않는 作品도 썼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난해하고 百餘韻이 넘는 길고도 엄격한 排律詩

32) 여거 예시한 도표 [I], [II], [III], [IV]는 정확한 통계에 의한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앞서 기술한 내용을 근거로 거략적인 도표를 시도해 본 것이다. 특히 표 [III]의 作家와 讀者의 曲線에서 作家가 讀者보다도 높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이는 時期的으로 作家와 讀者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며, 어느 한 작가와 독자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아니다. 晚唐詩의 作家는 상징적이고 수사적인 難解한 作品을 썼다 함이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그런 작품을 이해하거나 애호하는 독자는 그러한 문학적 소양을 쌓은 한정된 독자에 그쳤을 것이다. 그밖에 많은 독자는 새로이 유행하는平易하고 通俗的인 詩詞에 관심을 갖고 이를 애송하였을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적인 作家와 讀者의 비율을 고려하면, 이 曲線이 합당하리라고 생각한다. 표 [IV] 역시 唐代의 문학장르별 생성 발전을 이렇게 도표화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기왕의 재설을 종합해 보면 각 문학장르의 생성 발전 과정을 이렇게 도표로 나타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를 쓰기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以上の 圖表에서 唐代의 詩가 대체로 盛·中唐에 가장 다양하게 발전했음을 알 수가 있다. 근 100여년 간의 初唐文學의 점진적 발전은 唐詩의 형식을 완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문인들은 여러가지 형태로 唐代의 時代相을 거침없이 표현해 낼 수 있었다. 단지 詩만이 아니라 散文에서의 개혁도 일어났고, 민간생활에 눈을 돌려 그들의 애환을 그려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文學的인 특성을 時代的으로 명확하게 區分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A \rightarrow A' \rightarrow B$, $B \rightarrow B' \rightarrow C$, $C \rightarrow C' \rightarrow D$ 등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A가 갑자기 B가 되거나, B가 갑자기 C, D로 변할 수는 없다. 唐詩가 특히 발전한 이유를 蘇雪林은 (1) 學術思想의 發展 (2) 政治社會의 變動 (3) 文學格調의 創造力 등으로 들고 있고,³³⁾ 葉慶炳은 (1) 諸王의 倡導 (2) 科擧의 影響 (3) 詩의 社會基礎 擴大 (4) 詩歌 白體의 發展을 들고 있다.³⁴⁾ 이런 점이 唐詩를 발전케 한 이유가 됨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唐代가 六朝 이후의 文學的 遺産을 물려 받았고, 문인들의 특히 詩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詩가 唐代의 사정을 표현하기에 가장 어울리는 형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初唐에서부터 盛唐에 이르는 사이에 이같은 분위기는 李·杜로 하여금 천부적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절묘한 作品을 완성케 하였다. 이를 이어 白居易·元稹 그리고 李賀·李商隱 같은 뛰어난 인물이 배출되어 그 특색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唐詩가 唐 玄宗 때를 分期點으로 하여 성격을 달리 하는 데는 그때의 역사적인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安祿山의 亂 이후에 계속되는 叛亂과 政變은 결국 唐朝를 멸망하게 하였다.³⁵⁾ 그러한 混亂時期에 문인은 여러 면에서 자기의 입장을 詩로 나타내었다. 中唐 이후의 詩가 變體로 된 큰 원인이 되

33) 蘇雪林, 『唐詩概論』 臺灣商務印書館, 民國 59年 7月, pp. 5-10 참조.

34) 上揭, 中國文學講話(六), 葉慶炳 '隋唐文學概說' pp. 5-6 참조.

35) 王壽南, 『唐代政治史論集』 臺灣商務印書館, 民國 66年 7月 初版, pp. 133-181. '唐玄宗時代的政風' 참조.

있음은 물론이다.

요컨대 唐詩는 크게는 安祿山의 亂을 前後하여 文風이 크게 달라졌고 이를 통하여 민간을 대변하는 詩文이 쓰여지고 詩의 독자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독자의 노래를 도방한 문인의 새로운 형태의 詞가 생겨나기도 하고 민간을 위하는 문장, 즉 古文·小說·變文이 출현한 것이다. 좀더 각 時期別로 文人の 作品特性을 찾아 그룹별로 정리하여 唐代의 時期區分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먼저 각 作品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석적으로 검토하는 일이겠지만 既往의 많은 사람들이 이룩해 놓은 이러한 기존의 견해가 적어도 文學作品의 경우에는 정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또한 文學史는 먼저 作品의 構造(內容·形式)나 作家의 成分(出身·地域·身分) 등을 통하여 그 性格的 特徵이 그룹지어진 다음에 역사의 사실과 대조하여 보아야 하지, 그 반대로의 연구는 本末을 顛倒시켜 牽強附會하기가 쉽다.